광주소마고 '지방기능대회' IT종목 금메달 휩쓸어

모바일로보틱스 등 6개 직종 21명 수상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광주소마고)는 '2025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재학생 21명이 모든 직종의 금·은메달을 휩쓰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2025 지방기능경기대회'는 지난 7일부터 5일간 광주공업고등학교 등 10개의 경기장에서 열렸으며 '모바일앱개발' 종목은 15~18일 인천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에서 진행됐다.

광주소마고는 이번 대회에 모바일로보틱스, 클라우드컴퓨팅, 사이버보안, IT네트워크시스템, 게임개발, 모바일앱개발 등 6개 직종에 32명이 참가했으며, 총 21명이 금·은메달을 수상했다.

대회 입상한 학생에 대해서는 상장, 메달, 상금을 비롯해 해당 직종 기능사 자격시험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오는 9월 20일 광주시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광역시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모바일로보틱스 종목을 지도한 노주원 교사는 "방과 후 시간에 내·외부 강사를 활용한 훈련과 자발적인 주말 훈련 등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광주소마고는 '2024년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전국 2위 학교에 주어지는 은탑을 수상했으며, 국가대표로 출전한 졸업생들이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2024 제47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참가해 모바일로보틱스 금메달과 클라우드컴퓨팅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조선주 기자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지도교사 및 수상자. /광주시교육청 제공

장흥 용산면, 면민의날 성금 기탁 이어져 장흥군 용산면은 21일 열린 제19회 용산면 면민의 날 행사에서 지역 단체들의 이웃돕기 성금기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날 장흥군 조사료협의회 용산면 지회와 용산면 여성자율방범대가 용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을 기탁했다. /장흥=임민기 기자

청계면 청년회, 승달산 철쭉공원 가꾸며 환경정화 활동 무안군 청계면 청년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20일 봄기운이 완연한 승달산 철쭉공원에 모여 낡은 시설물을 정비하고 철쭉 100주를 정성껏 심었다. 이번 활동은 2005년부터 청년회가 매년 이어온 '철쭉공원 가꾸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무안=김상문 기자

광양 중마동 '나눔가게' 현판 전달 광양시 중마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에 '나눔가게'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나눔가게로 선정된 '더 런드리 셀프빨래방' 2016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실천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현판을 수여받았다. /광양=조순익 기자

국립순천대, 중·고교 전공 체험 'SCNU오픈캠퍼스' 운영 국립순천대학교는 지역 중·고등학생의 진로 설계를 돕는 전공 체험 프로그램 'SCNU 오픈캠퍼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주우치공원,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연구·보존 체계적 추진

전남대 수의대·전남대 동물병원 업무협약 체결

광주 우치공원이 천연기념물·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동물의 질병 연구와 보전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시 우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전남대학교동물병원과 '동물복지 향상 및 수의학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세 기관은 동물원 동물의 복지 향상과 수의학 연구·교육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우치공원은 전남대학교 수의과대학의 실험실 및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동물의 질병 연구와 종 보전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전남대학교동물병원의 각 전공과별 전문의료 자문과 보유한 의료장비를 기반으로 동물 전문 진료를 펼칠 수 있다.

우치공원은 수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동물원 현장을 활용해 다양한 동물 종에 대한 진료 기회를 제공한다.

전남대학교동물병원은 맹수류, 해양동물, 파충류, 조류 등 다양한 종의 동물 진료 사례에 대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도기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봄날의 하림' 북콘서트

광양중앙도서관은 제61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중앙도서관 1층 문화공간 하루에서 열린 '봄날의 하림, 책을 부르다' 북콘서트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주제로, 책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성적인 북콘서트로 기획됐다.

가수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하림은 본인이 집필한 동명의 그림책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합니다'를 소개하며 책을 쓰게 된 배경과 자신이 경험한 사랑, 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려줬다.

이어 그의 대표곡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난치병' 등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온 곡들을 직접 라이브로 선보이며 행사에 깊은 울림을 더했다.

관람객들은 따뜻한 음색과 서정적인 이야기 속에서 책의 메시지를 더욱 깊이 공감하며, 책과 음악이 주는 위로를 체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또한, 행사 종료 후에는 작가와의 사진 촬영 및 사인회도 함께 진행돼 시민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했다.

남수향 중앙도서관팀장은 "시민들에게 책을 통한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기를 바란다"며 "인문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광양=조순익 기자

광주시교육청-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맞손'

업무협약 체결…학교 현장 맞춤형 교육 기반 마련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학교 기반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정선 교육감과 최유명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장은 21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25년 미디어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매체 문해력을 키우고,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기관은 앞으로 ▲학생 맞춤형 학교 미디어교육 운영 ▲미디어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 및 강사 양성 ▲학교 간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학교 현장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또 상호 협의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선주 기자

한국광기술원-우즈벡 치르치크시 '맞손'

광융합기술 공동연구개발 업무협약 체결

한국광기술원은 22일 우즈베키스탄 치르치크시와 광융합기술 공동연구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광기술원 입주기업인 트로닉스가 광기술원의 보유기술을 기반으로 치르치크시에서 스마트 조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

한국광기술원의 보유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더 많은 산업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치르치크시와 MOU를 체결하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은 최근 산업 현대화 및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치르치크시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기술원은 치르치크시와 공동 연구, 기술 실증, 현장 적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동기 기자

전남교육청, 자율형 공립고 2.0 내실화

16개교 컨설팅 통해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 실현

전남도교육청은 21~22일 목포 진로진학상담센터 등에서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 16교를 대상으로 권역별 컨설팅을 실시했다.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교육부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정책으로, 학교에 자율성과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권한을 부여해 교육력을 높이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고교 지원 사업이다.

전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6개교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며, 이는 지역소멸과 인구감소라는 전남의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특히 전남교육청은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각 학교가 지역의 산업·문화·환경 등을 반영한 교육모델을 개발·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는 지역 중심 학교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학생들이 지역 내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권역별로 진행된 이번 컨설팅은 학교별 사전 요청 사항을 반영해 ▲교육부 행정 이행 사항 ▲자율형 공립고 평가 지표 ▲협력기관 연계 및 예산 집행 적정성 등 학교의 사업 운영 계획이 지정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전문가 컨설팅, 주요 프로그램 공유, 우수사례 발굴 및 개선방향 논의를 통해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혜를 모았다.

전성아 진로교육과장은 "지역소멸과 인구감소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 특화 교육의 중심이 돼야 한다"며 "학교가 지역의 중심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순천경찰 '성과관리 전략보고회' 개최

'안전한 순천, 행복한 시민' 위한 치안 전략 모색

순천경찰서는 경찰서 봉화마루에서 각 과장, 계·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치안종합성과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 전략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2024년 치안성과를 되돌아보고, 기능별 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성과 향상 전략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안전한 순천, 행복한 시민'을 위한 주민 체감형 치안서비스 강화 방안과 치안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개선 과제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대원 순천경찰서장은 "성과 지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체감 치안 향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며 "모든 직원이 따뜻하고 당당한 자세로 순천경찰의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순천경찰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관리와 현장 중심의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모두가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순천=조순익 기자